

書評에 대하여

英國의 경우 ㉑

출판사와 신문의 '신사협정'

영국의 출판물에는 예외없이 출판일(publication day)이라는 것이 있다. 신간예고의 광고를 보아도 대개 '출판일 몇월 며칠'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책은 대개 예고대로 출판일에 출판된다. 물론 출판사의 내부사정이나 저자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빨리 나오지는 못한다.

출판일이란 업계 내부에서는 책이 서점 점두에 나온 날이란 뜻으로 쓰여지며, 실제로는 출판일의 수주일 전에 출판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출판일이 갖는 의미는 대체 어떤 것인가.

보통 출판사가 출판한 책을 서점에 보내는 것은 여기서 말한 출판일보다도 앞선다. 신문이나 잡지에 보내는 서평용 기증본(review copy)도 마찬가지이다. 출판일의 며칠 전이나 하는 것은 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4주간에서 6주간 전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사이 서점에 서는 책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신문이나 잡지, 특히 신문의 경우는 그 기간을 서평을 쓰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친다.

출판사에서 서평용 기증본을 신문에 보내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서평으로 다루어지기 바라기 때문이다. 신문이 서평으로 다룰 만한 책을 선정하여 書評家에게 부탁해서 원고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이 서점에 진열되는 날에 맞추어서 서평이 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경우 선전효과는 만점일 것이다. 즉, 출판일은 서점 창고에서 책이 점두로 옮겨지는 날이고, 동시에 서평이 신문에 실리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출판일은 대개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된다. 어느 출판사의 어느 책을 보아도 거의 예외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

먼저 목요일에 대하여 설명하면, 이날 영국의 주요 신문은 일제히 '책의 페이지'(book page) 즉 '서평란'을 신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문에 서평이 실리는 요일이 출판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월요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요일에 서평란을 둔 신문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전날인 일요일에는 각 일일신문이 일제히 서평을 실는다. 즉, 월요일이 출판일인 책은 일일신문의 서평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출판사와 신문의 신사협정이라고 말한다.

영국의 신문 · 잡지의 서평은 문예담당 편집자가 맡아서 처리한다. 서평용으로 기증된 모든 책을 일일이 검토한 뒤 복수의 서평가에게 운번제로 서평을 의뢰하기도 하고, 스스로 서평을 쓰기도 한다. 이들은 대개 전문 학술잡지 편집자에 필적할 만한 학식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知名度도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모든 책의 서평이 출판일에 실리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특히 「선데이 타임스」 「옵저버」 등 일일신문이나 「타임스」나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이른바 고급지(quality paper)에서 다루어지는 책의 약 절반은 출판일과는 상관없고, 개중에는 석달 전 것도 있다. 이렇게 출판일에 서평이 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들 신문의 서평은 잡지의 서평과 흡사한데가 있다.

書評 취급은 기증본의 5분의 1

잡지의 경우는 출판일과 전혀 관계없이 서평이 실린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잇점이 되는데, 서평가는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서평을 쓰게 된다. 때로는 두번 세번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관련된 다른 책과 비교도 할 수 있다. 신문의 경우는 시간적 제약 - 가령 출판일 수주일 전에 책이 도착했다더라 - 때문에 생각대로 안되는 것이 실정이다.

일일신문이나 고급지의 경우는 출판일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서평도 있지만, 대중지(popular paper)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것은 대중지에 있어서의 서평은 뉴스스토리라는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 이외에도 작가의 사진이나 말이 게재되고, 화제로서 작가의 수입이나 애인관계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바른 의미의 서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뉴스밸류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 책의 출판일에 맞춰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독자의 흥미도 반감된다.

다음은 서평의 프로세스이다. 신문이건 잡지건 서평용 기증본이 도착된 뒤에 지상에 게재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는가.

출판사에서는 대개 신간을 내면 60권에서 100권의 서평용 기증본을 보낸다고 한다. 그중에서 서평으로 채택되는 것은 5분의 1의 비율이라고 한다. 참으로 많은 손실인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쪽에서 말하면 「타임스」는 연간 약 1만 권을 기증받는데 그중 正規의 서평으로 채택되는 양은 1600권, 서평 이외의 記事로서 채택되는 것이 약 400권, 포함 2000권이 되므로, 다섯 권에 한권의 비율이 되는 것이다. 잡지에서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뉴스테이즈맨」(주간)은 일주일에 평균 100권, 연간이면 약 5000권의 책이 기증되는데, 그중 20% 정도가 서평의 대상에 오른다.

大衆紙는 '재미있는 책'을 選好해

신문이나 잡지사에 서평용 기증본이 도착하면, 그 책을 문예담당 편집자(litrary editor)가 처리한다. 「선데이 텔레그래프」의 문예담당 편집자 니콜라스 바그넬의 말에 의하면, 그는 매주 40권에서 50권의 책을 대충 훑어보고 그중 네다섯권을 정독한다. 그리고 서평을 자기가 쓴다는 것이다. 또 「뉴스테이즈맨」의 문예담당 편집자 안소니 스웨이트의 말에 의하면, 기증된 모든 책을 그 자신과 조수 둘이 훑어보고, 소설은 輪番組를 짠 4인의 서평가 중 한사람에게 돌린다. 소설 서평은 복수의 서평가가 운번제로 돌리는 것은 「선데이 타임스」도 같으며, 그들은 매주 최고 여덟권의 소설을 읽고 그중에서 4~5권을 고른다. 또 대중지인 「데일리 엑스프레스」의 문예담당 편집자인 피터 그로브너의 말에 의하면, “나는 제일단계에서 모든 책을 검토하여 특히 기술적 전문적인 책은 우리 신문사의 전문스텝에 돌리고, 나머지 책을 보고나서 대부분 스스로 서평을 쓴다. 이따금 거물 기고자에게 부탁하는 외에는 외부 서평가에게 의뢰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피터 그로브너의 서평 선정 기준은 이렇다.

① 다른 대중지가 크게 취급한 것은 제외한다.

② 일요일이 다른 것은 제외한다.

③ 뉴스밸류가 있는 것은 출판일에 맞추어서 다룬다.

④ 소설은 독자가 많지 않을 듯한 것은 웬만큼 좋다 하더라도 다루지 않으며, 즐거리가 재미있는 것을 취한다.

⑤ 작자는 저명인인 편이 좋다.

⑥ 소설보다는 년픽션 쪽이 좋다.

이상은 대중지다운 그럴 듯한 선정기준이라 하겠다.

문예담당 편집자에 혹독한 비판도

그런데 앞에서 신문 · 잡지의 문예담당 편집자들의 말을 인용하였지만, 그들의 사회적 존재와 知名度는 각각 상당히 높다. 그런데 戰前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전후 대폭 문예담당 편집자의 교체가 이루어져서 그 전까지 사교계의 명사적 존재인 ‘독서인’으로부터 대학교육을 받은 ‘학식인’에게로 인계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고 정착되어 갔다. 대개 그들은 전문 학술잡지의 편집자에 필적할 만한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다.

이와같이 학식과 그에 상응한 권위를 가진 영국의 문예담당 편집자들이지만, 어쩌면 그런 때문인지 한편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 특히 비판의 과녁이 되기 쉬운 것은 「가디언」 「선데이 타임스」 「옵저버」 「뉴스테이즈맨」 「엔카운터」 「타임스 문예부록」 등의 편집자들인데, 그들 사이에 특별히 ‘옥스브리지’(옥스포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적이며 ‘블룸즈베리’(작가 · 학자들이 많이 사는 런던의 한 지구)적인 연락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증거로 그들 사이에서는 종종 편집자의 상호 교환이 있으며, 또 서평가 자신도 서로 왕래한다. 이것은 ‘마피아’(범죄 비밀결사)와도 흡사하여 서평을 엄청나게 보수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영국문학 뿐 아니라 영국문화 전체, 나아가 영국 그 자체를 파멸시키려 하며” 따라서 그들은 ‘知性的 죽음’의 대리인에 다름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와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옥스브리지를 중심으로 성립한다는 영국의 知的 풍토를 반영하여 흥미롭지만, 이 비판은 어느 의미에서 정당하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빛나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대 출판의 元祖는 영국이다.
따라서 書評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달했다. 영국의 서평활동의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서평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서평문화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外誌에 실린 「영국의 서평에
대하여」를 2회에 걸쳐 간추려 소개한다.



전문가를 敬遠하는 편집자

막상 문예담당 편집자의 손에서 떠난 책은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서 서평이 씌어지는가. 앞에서도 언급한 「데일리 텔레그래프」나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경우처럼 편집자 자신이 대부분의 서평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신문·잡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기고자에게 의뢰하는 편이 많다.

그 경우 그 책에 관련된 전문분야의 인사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편집자에 따라서는 특정 영역을 커버할 서평가를 항상 자기 주위에 준비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또 한 편에서는 고의로 「전문가」를 경원하려는 편집자도 있다. 예를 들면, 10년 전 「루리티니어」(유럽중부에 위치한 가공의 왕국)에 대한 책을 썼던 일이 있던 사람에게 새로이 나온 「루리티니어」의 책 서평을 쓰란다면 “갈을 가는 소리가 들리고, 쌓인 원한을 풀려고 하여 사소한 잘못도 용서 안한다”라는 결과가 되기 쉽다. 때로는 年代나 고유명사의 철자법이 틀린 점을 지적도 하겠지만 대개 그 방면의 전문가라는 사람은 피해 나가는 편이 좋다. 도리어 아주 다른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 예상외로 재미있는 것이 되고 독자도 그 쪽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아뭏든 단기간에 써야 할 서평인지라, 줄리언 시몬즈가 말한 다음과 같은 서평가가 편집자측으로서는 이상적이라 할는지 모르겠다.

확실히 서평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양식이 있더라도,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문장을 쓰는 사람은

경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평가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교양만이 아니다.

서평할 작품에 대한 정열과 함께 서평을

재미있게 쓰는 기술도 필요하다.

서평은 결코 단순해서는 안된다.

“문예담당편집자의 주요 관심사는 예를 들면, 탐험가의 전기 세권에 대하여 기일 안에, 그리고 매수대로 서평을 완성하고, 다시 2주 뒤에 제2차대전 중의 장군의 전기 세권을 읽고 한편의 서평을 완성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書評진출로 수준 높아져

소설 서평에 대하여 말한다면, 대개의 신문·잡지는 소설 전문의 서평가(fiction reviewer)에 의뢰하며, 「선데이 타임스」와 같이 특정 전문서평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신문도

있다. 여기서는 세사람의 전속 서평가가 서로 윤번제로 매주 한사람이 최고 8권의 소설을 맡아서 그중에서 4~5권을 서평 대상으로 고른다. 약 반가량은 탈락되는 것이다. 「뉴 스테이크맨」지 역시 네사람의 서평가가 윤번제로 조를 짠다. 한사람이 매주 10권에서 15권의 소설을 돌려받아 그중에서 작품의 가치와 서평 스페이스를 고려하여 3권 내지 6권을 골라 낸다.

「선데이 타임스」나 「뉴 스테이크맨」과 같이 전속의 서평가와 계약했을 경우의 잇점은, 같은 서평가가 정기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독자에게 호감과 안심감을 갖도록 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전속 서평제에도 결점이 따른다. 어느 소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적임자인가를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편집자에게 주어져도 좋을 일인데, 그것이 안된다. 예를 들면 “이 작가의 이번 소설은 그의 명성을 훼손시킬 것 같은 작품이다”라고 편집자가 생각하였을 때, 오히려 그 소설에 비판적인 사람을 서평가로 지정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게는 차마 하지 못한다. 전속의 서평가로 말하면, 신문사나 잡지사의 스타일에 좌우되기 쉽다는 위험성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소설 서평은 戰前의 그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좋아졌다는 것이다. 전전의 서평을 평하여 버지니아 울프는 ‘gutting’(무비판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하거나 ‘stamping’(찬성·반대의 낙인을 찍는 것)하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소설 서평의 권위는 없고, 실제로 작가들은 서평을 무시 내지는 경멸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1930년대 초기에는 출판광고의 대폭 확장으로 말미암아 출판사와 신문의 타산적인 유착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결과 서평가는 매수되고 부패하였다. 조지 오웰에 의하면, 서평가는 책을 받을 때 “좋다면 서평을 하고, 아니면 책을 되돌려 달라. 혹평을 게재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후에는 이와같은 출판사와 신문의 나쁜 관계는 사라졌다. 신문 제작비의 증대, 발행부수의 증가, 그밖의 이유에서 광고료가 대폭 인상됨으로써 아무리 작은 광고를 낸다 해도 상당한 비용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출판사가

광고를 못내게 되었다. 영국의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현재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전후엔 서평가의 인제 교체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전후 대학의 확장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의 대학교수가 소설 서평을 손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설 서평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았으며, 서평을 써서 생계를 꾸린다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전의 서평가만큼 쉽사리 매수되지 않았다. 독자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신선한 서평을 요구하게 되었다.

‘서평은 흥미진진한 문장으로’

대학인이 소설 서평에 진출함에 따라 서평의 질은 높아졌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데이비드 홀러웨이는 학자 서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소설의 서평은 누가 써도 좋다고 생각한다. 소설가가 쓰든지 저널리스트가 쓰든지 학자가 쓰든지 상관 없다. ...그들이 소설을 사랑하고 소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문장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 정직하게 말해서 학자에게는 진저리가 난다. 그들은 소설을 죽은 물건으로서 취급하고, 독자의 벗으로서 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檢屍에 임한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확실히 서평은 즐거운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읽고 나서 재미없는 것이면 안된다. 그런 서평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예담당 편집자의 직무라고 한다면, 그는 서평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양식이 있더라도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문장을 쓰는 사람은 경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서평가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과 교양만은 아닐 것이다. 서평할 작품에 대한 정열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그 작가의 과거의 모든 작품을 알아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서평을 재미있게 쓰는 기술, 또는 재능이다. 한두사람의 독자를 향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독자를 위해 쓰고 있다는 자각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서평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또 단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계속〉